□성명서□

남양유업 불가리스 사태, 최악의 파국은 막아야!

남양유업 불가리스 사태를 바라보는 낙농가들의 심정은 착잡하기 그지 없다. 남양유업을 향한 사회적 공분은 날로 커져가고 있다. 남양유업은 그간 사회적 파장을 여러 차례 일으킨 만큼 최근 대국민 사과에 대한 진정성 있는 조치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양유업이 국민과 낙농가·대리점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경영쇄신안과 자구책을 하루속히 마련하여 만천하에 제시하고 이행해야 한다. 뼈를 깎는 쇄신만이 모두가 살길임을 우리 낙농가들은 우선 밝혀두는 바이다.

세종시에서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영업정지 예고가 통지된 이후 해당 낙농가들은 밤잠을 설치며 노심초사하고 있다. 만약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대한 영업정지 2개월이 처분될 경우, 낙농산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저장성이 없는 우유를 처리할 수 있는 가공처 확보 부족으로 전국 낙농가의 약 15%에 해당하는 700여 낙농가(남양유업 납품)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다. 최악의 경우 우유폐기로 인한 환경문제까지 대두될 우려가 있다. 특히 국내 낙농산업과 연관된 전후방산업의 피해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 피해 당사자인 낙농가들은 올해 초 사료값 폭등으로 인해 어려움의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회생 불능상태에 놓여 질 수밖에 없다.

낙농특성상 저장성이 없는 우유는 목장에서 매일매일 짠 젖을 가지고 우유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짧고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고스란히 버려야 하는 일배식품이다. 단기적으로 시장의 수요에 따라 수도꼭지처럼 생산을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없을뿐더러 생산은 불특정 다수의 낙농가들에 의해, 가공은 소수의 유업체에 의해 이루어짐에 따라 낙농가들은 절대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엄정한 법집행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것이 산업적 특성과 사회적 약자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결과는 선량한 약자의 희생으로 채워지기 마련이다. 관계부처(식약처, 농식품부)와 세종시는 낙농산업의 특성과 선량한 낙농가의 처지를 고려하여, 유가공공장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만은 제외시켜줄 것을 촉구한다. 남양유업은 금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법령과 윤리를 준수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환골탈태하기를 바란다!

2021. 5. 13(목)

한 국 낙 농 육 우 협 회

전화 : 02-588-7055 / 팩스 : 02-584-5144

홈페이지 : www.naknong.or.kr